

나는 지금 죄없이 살고 있는가

감성으로 보는 권

<17>지봉 위의 보살

어느 날 동물원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을 공개한다는 공고를 냈다. 가장 잔인한 동물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러나 막상 그 동물원엔 어느 동물원에서도 볼 수 있는 동물들만 줄지어 놓고 있을 뿐, 가장 잔인하다는 동물은 보이지 않았다.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 한 곳에 이르니 네모로 된 큰 기둥이 하나 서 있었다. 그 기둥은 거울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곳에 이렇게 쓰인 팻말이 하나 붙여져 있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 그 거울엔 구경 온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고 왕이 된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스런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 그에게 흠뻑 반해서, 우리아를 일부러 처절한 전쟁터로 내보내 죽게 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했다. 이에 분노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달려가 말했다. "가진 것이라면 자식처럼 늘 품에 안고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한 사람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와, 손님을 대접하는데, 부자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아닐까

제 양과 소를 잡는 것이 아까워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군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다윗 왕이 크게 화를 내며 소리쳤다. "하, 그거 마땅히 죽을 놈이구만." 그러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말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오"

지난 번 미국의 테러 사건은 참으로 잔인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나는 그날 그 사건을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집에 들어가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 정말로 엄청난 일이었다. 비행기가 거대한 빌딩을 들이받고 화염에 휩싸이며, 그 높은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TV는 아마 수십 번은 방영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말했다. "와, 완전히 영화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봐도 봐도 지치지 않을 만큼 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다. 구경 중에서 제일 신나는 구경이 불구경이고, 가장 짜릿한 구경이 싸움구경이라고 하지? 남이 아니고 바로 '나'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산다. 아니, 나만큼만 살면 세상은 잘 돼 간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세상은 한없이 어지러운데... 우리는 남의 잘못엔 추상감이나 자신의 잘못엔 지나치게 너그럽다.

어떤 분이 말한다. 동네 놀이터에 흰 남자가 매일 술을 먹고, 그러곤 누워 잔다고 한다. 불쌍하단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천 원짜리 한 장 건져주는 것이 듣는 것일까, 아니면 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릴 줄을 아는 마음이 참된 마음일까? 나는 길거리의 절인 앞을 지나가며, 또 지리현이나 공원 벤치에 누워 잠자고 있는 노숙자 앞을 지나가면서 늘 주눅이 든다. 왜 저들의 더럽혀진 손을 한 번 잡아주질 못할까? 내가 숫자가 없어서? 아니다. 마음으로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높이 때문일



대구 팔공산 북지장사 일주문 지붕.

것이다. 짙어 들어가면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에는 신장상이 있다. 그 신장은 대개 부처님께 굴복하여 불법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한 인도의 토속신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천오백 년이 넘었지만, 우리 나라 토속신이 신장이 된 경우는 없다. 짙 안엔 삼성각이나 독성각 또는 칠성각이나 산신각 같은 우리의 토속신이 짙에 수용된 전각들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보살펴 주는 수호신이지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은 아니다. 때로 짙 앞에 장승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이것도 불법을 옹호하는 수호신이라 할 수는 없다. 우리의 토속신은 싸워서 이기는 싹새(신장이 아니고, 슬기와 지혜로 악을 물리치는 지혜의 인격신이기 때문일까? 그러기에 우리의 토속신은 무장상이 아니라 조금은 겉주는 듯 하면서도 익살스럽고, 자세히 보면 슬기롭게 생겨 한없이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어느 날 대구의 팔공산에 있는 북지장사를 갔다. 멀리서 일주문 지붕 위를 바라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지붕 위에 흰 짐승 한 마리가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고 서 있었다. 그것은 우리의 토속신이 된 보살이었다. 삼독에 빠져 삼악도를 기웃거리던 인간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원력을 세우고 지킴이가 된 보살이었다. 그리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지붕 위에서 서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빙고 있었다. 나는 나의 짐지는 의식을 일깨우는, 그 짐승의 울부짖음을 가슴 아프게 들었다.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오늘도 죄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희희낙락거리며, 그 밑으로 뒹뒹하고 그리고 겁 없이 대웅전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다.

전생(사진가)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올바른 세상' 어디에 있을까

한글대장경의 세계

기세인본경

인도출신의 팔마금다가 수 양제 대업연증(605-616)에 번역한 '기세인본경(起世因本經)'은 세상을 올바르게 일으켜 세우려는 근본에 관한 교설을 전체 10권으로 담고 있다.

제1권에서는 염부주품과 율다라구류주품의 상권이 실려져 있다. 염부주품은 수미산의 남쪽에는 염부라는 큰 나무들이 있고 많은 산들이 있으며 코끼리와 용왕 등이 살고 있는 염부주가 있는데 이러한 세계들은 저 삼천대천 세계가 그러하듯 동시에 성립되고 동시에 부수지고 흩어진다. 이것이 아 같은 변화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이 세계라는 것이 염부주 품의 내용이고 그 중생들이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는 가장 뛰어나고 오묘하다는 세계를 그린 것이 율다라구류주품이다.

제2권에는 그 율다라구류주품의 하권과 4대주와 8만의 작은 주 및 온갖 산과 수미산 외에 칠가라라는 금강으로 된 산과 중대 칠위산의 사이에 팔대지옥과 각각 16개의 지옥이 있다는 지옥품의 상권이 실려져 있다. 지옥품은 3권에 중품이 4권에 하품이 이어져 수록됐다.

제5권에는 태 난 습 화로 태어나는 여러 용과 금시조에 관하여 실한 제용금시조품과 아수라품의 상권이 실려 있다. 아수라품 상권에는 수미산 동쪽으로 1천유순을 거낸 대해가 있고 그 밑에는 너비와 깊이가 각각 8만 유순이며 일곱 겹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비마질다라 아수라국과 그 왕이 거처하는 궁전 등이 있다는 내용.

제6권에는 아수라품의 하권과 사천왕품, 삼십삼천품이 수록됐다. 사천왕품은 수미산의 동쪽에 유견타산이 있고 그 산 위에는 칠보로 장식된 제두리 타천왕이 거처하는 성이 있는데 이러한 곳은 남 북

서의 세 군데에도 더

있음을 살하고 있다. 삼십삼천품은 수미산의 정상에는 삼십삼천의 궁전이 있는데 이곳은 각각 크기가 8만 유순이며 일곱 겹의 성벽과 일곱 가지 보배로 장식되어 있고 노닐고 즐기는 데

는 하등의 불편함이 없다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

제7권에는 삼십삼천품의 중권이 제8권에는 삼십삼천품의 하권과 부처님이 전생에 제석이었을 때 아수라 왕을 체포하여 용서 한 일과 그와의 논쟁 사실 등을 그린 투전품이 실려져 있다.

제9권에는 세간의 중품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올바른 행업이 없어서 그 수명이 10세를 넘지 못한다는 도병(刀兵)과 법업이 없어서 비 등이 내리지 않아 기근에 사는 사람과 징벌을 행하고자 하나

질병을 얻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은 세계 등을 실한 겹주품과 화재 수재 풍채 등을 실한 주세품 및 최승품의 상권이 실려져 있다. 최승품에서는 세간의

의 생생변화를 반복하는 가운데에 공음천에는 복이 다한 중생이 태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0권에서는 이 상승품의 하권이 실려지고 있다.

기세인본경은 부처님이 사위국의 기수금고독원에 계실 때에 강당에 모인 많은 비구들이 천지의 발생과 그 파멸에 관하여 논의하고 또한 중생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궁궁해하는 것을 들으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주의 생성과 구성조직과 변화 과정 및 종말 등에 관해 설한 내용이다. 불교의 우주관을 실한 경전인 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은 삼천대천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의 여러 가지 타락과정을 인간의 죄업을 중심으로 묘사해서 주지시키고 이를 벗어나서 다시 인연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 등을 교시한 경전이다.

우주의 구성·변화 설명 안락한 인간세상 제시



현대불교신문사와 동국역경원은 이 캠페인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캠페인 및 대장경 봉안 봉사, 역경 후원회 가입 등과 관련한 문의도 환영 받고 있다. 장경각보급 및 캠페인 관련 문의 (02)722-4162, 역경후원회 문의 (02)2260-3893, 역경후원금 온라인 농협 078-02-079975 예금주 강계술(석주스님).

가야산 범보종찰 해인사 대범종

천년을 이어갈 맑은 「범음」

종종사는 오직 鐘만을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

鐘宗社

서울 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 302호 ☎ (02)725-0878

공 장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460

☎ (043)212-0903

중량 3,300관

